

축산폐수 유출 한림지역 '물관리'

국립환경과학원-제주도, 지하수 수질개선 협약 4년간 실시간 수질 감시·오염 저감기술 등 적용

축산폐수로 곤욕을 치렀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축산분뇨 유출지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도청에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제주도 한림읍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혁신 과제인 하나인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도입으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해 '축산폐수 유출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이 시범사업은 올해 6월부터 약 4년간 추진하며, 축산폐수가 유출됐던 제주시 한림읍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축산폐수 무단방류 지역의 지하수 측정망에 기기분석 기법을 적용해 암모니아성질소 등 지하수의 수질변화를 감시하게 된다. 1차년도인 올해 조사 결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지점은 오염저감방안 등을 도출한다. 2차년도인 내년부터는 수질오염 저감방안 시범 적용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 수질관리 개선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질오염 저감방안은 오염원 제어방법(액비 거동평가 등), 농노도 지하수

정화(생물학적 저감공법, 원위지 양수처리공법 등) 등이다.

제주도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산분뇨 유출지역의 지하수 수질개선 사업 수행방안을 포함해 ▷시범사업 지역의 축산시설 현황 및 지하수 자료 등 환경정보 공유 ▷시범사업 지역 수질개선과 관련한 연구자료 및 결과 공유 ▷시범사업에 필요한 관측시설, 공유지 등의 사용협조 ▷'정보통신 기반' 실시간 감시기기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서로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사업 추진 결과는 향후 축산폐수 오염지역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기술활용과 정책 개발 등 제도개선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윤기자 sycho@ihalla.com



"당근밭 병충해 막아라" 6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당근 밭에서 농민들이 병충해 방제를 위해 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컨벤션센터 도민주 매입 본격화되나

도, 내년부터 3년간 68억 투입 11월 의회 정례회서 심의

내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 개인주(도민주 포함) 매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민 주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ICC제주 도민(개인)주를 매입하기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관리계획(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도는 해당 관리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하

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가 치평가를 통해 매입방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매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8억원을 투입해 단계별 매입 추진을 검토 중이다. 우선 70대 이상 고령 주식보유자를 대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997년 ICC제주 건립 이후 2018년 말까지 발행된 총 주식수는 약 3772만주(1886억원). 이 가운데 개인주 3841명이 전체 주식의 3.6%인 약 13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339명으로 약 9억원 규모며, 70대 615명(17억), 60대 846명(13억), 60대 미

만 1955명(22억)이다. 도는 액면가(5000원) 기준으로 총 사업비(취득금액)를 산정했다.

도는 이번 개인주 매입을 통해 하락했던 도민 주주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ICC제주의 공익적 기능 강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997년 ICC제주 설립 당시 도민주제 방식(도민주)으로 건립이 추진되면서 도민들에게 후자사업을 추진해 배당금 지급을 공약했지만 설립 이후 22년간 배당금 지급은 전무했다. 또 설립 당시 출자자들의 고통화 확대를 우려 출자 주식 반환 요구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개인주주들의 불만이 가중됐다. 오로지기자

재활용도움센터 무제한 빈병 반환 '호응'

올해 반환액 2억... 작년비 ↑

서귀포시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빈용기(소주·맥주병) 반환이 생활속에서 자리 잡으며 자원 재활용과 함께 시민 편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 빈용기 보증금은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이다.

시는 8곳의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올해 10월까지 빈용기를 배출한 시민들에게 직접 지급한 보증금 반환액이 2억520만원(201만4700병)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빈용기 보증금 반환액(1억581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월평균 반환액이 작년 대비 56%, 회수량은 46% 증가했다.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빈용기 보증금 반환은 2017년 대정읍 동일1리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서 빈용기의 하루 반환량을 제한함에 따라 시민들이 쓰고 난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받기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협약해 선보인 후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 5곳, 올해 2곳이 추가돼 모두 8곳으로 확대됐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재활용도움센터에 자판기 형태의 무인회수기와 반환업무 담당할 인력 8명(하루 4시간 근무)의 운영비도 지원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내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부터는 성산읍 고성리 재활용도움센터에서도 빈용기



서귀포시가 2017년 전국에서 첫 도입한 재활용도움센터내 빈용기 보증금 반환이 시민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10월까지 보증금 반환액이 2억원을 넘어섰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반환 수집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시 전역에 거점형 빈용기 반환 수집소를 갖추게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관광개발·투자진흥지구 투자·고용 감소

지역업체 참여 늘어

올해 6월말 기준 제주지역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역 업체 참여 실적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늘었지만 투자·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60곳(관광개발 21, 유원지 16, 투자진흥지구 23)에 대한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6일 공표했다.

집계결과 도내 업체 참여실적은 2조5510억원으로 전체 업체 실적 중 51.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과 비교해 4758억원(7.3%p) 증가한 규모다.

반면 사업장의 승인취소, 지정해

제 및 사업자의 입력오류 등으로 투자와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감소는 관광개발사업장(팜파스) 승인취소, 유원지개발사업장(예래휴양휴거터단지) 인허가 무효, 투자진흥지구(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 절차 진행 등으로 투자계획과 실적에 제의됨에 따른 것이다. 고용감소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자 입력오류 수정, 신화역사공원 퇴사직원 미채용, 녹지병원 직원해고 등이 원인이다.

투자금액의 계획 대비 실적은 10조9325억원으로 60.4%를 기록했다. 중문이 안료돼 운영 중인 23개 사업장의 경우 계획대비 투자실적은 100% 초과 달성했으며 고용실적은 98%(도민 96%), 지역업체 참여는

73%로 나타났다.

일부 중공 돼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37개 사업장의 계획 대비 투자 실적은 58%, 고용실적은 28%(도민 24%), 지역업체 공사참여는 48%다.

도는 대규모 사업장의 개발지연에 따라 다소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헬스케어타운 등이 11월 공사를 재개할 예정임에 따라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 하반기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은 충족하고 운영은 되고 있으나 고용 저조 및 일부 시설을 미운영하는 사업장 4곳에 대해서는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후 미이행 시 회부명령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사업추진 불가, 회부명령 종료, 사업장 매각, 미착공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 3곳은 지정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로지기자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

서귀포시가 내년 7월 1일 적용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자동실효)를 앞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와 변경 등 재정비안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주민 열람과 순회 설명회도 이달 중 연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운영을 진행중인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로 599개소와 공원 10곳 중 현재 집행계획이 없는 도로 509개소는 폐지될 전망이다. 폐지 도로 중 479개소는 마을간길인 소로다.

총면적이 178만㎡인 10곳의 도시공원내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총 18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354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이어 내년 393억원, 2021~2022년 각 228억원, 2023년 이후 682억원을 발행해 사유지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읍면동 주민 설명회를 이달 12일 대정읍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열어 주민열람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2019년 제3회 한국은행 제주본부 한은강좌

나를 찾는 심리여행

■ 일 시
2019년 11월 15일(금) 14:00~16:00

■ 장 소
한국은행 제주본부 3층 강당
제주시 복지로1길 20 (도남동, KBS 옆)

■ 강 사
김경일 교수
· 현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현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 University of Texas Austin 박사
· 저서 :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2018) 외 다수

■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 신청(무료)
· 연락처 : 기획금융팀 064-720-2506, 2519

※ 참석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식지전문할인마트 MARTRO 뉴월드마트

Essential Vegetable Hot Deals

아랍무신만큼 저하가 토마토만큼 저렴합니다!

본 상품은 시세에 따라 급변동될 수 있습니다.

무우 박스(8-10입)	25,500원
배추 1방(3입)	12,000원
대파 1단(8kg)	15,800원
양파 1방(15kg)	10,500원

해당점 : 마트로 3개점(탐동점 756-6900/일동점751-4600/노형점745-7411) 뉴월드마트 1개점(신제주점 745-4600)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희준은 히말라야 8,000m 10좌를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으며, 남북극점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설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희준님은 지금도 히말라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11월 17일(일) 08:00
장소 야구장 앞 시계탑 집결 · 서귀포점 : 08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 집결

·인 왕:선착순 40명
·비 용:10,000원(교통비및 산악보험) 농협 351-1060-7931-53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준비물 :도시락,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산행코스:거린사슴-돌오름-영아리오름-마보기

산악인 오희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동중학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체육 산업학 기입
1999년 5월 20일 내팔 히말라야 초호유(8,201m)등정
2000년 7월 30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등정
2000년 10월 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시샤방(8,031m)등정
2001년 4월 29일 내팔 히말라야 로제(8,516m)등정
2001년 7월 2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K2(8,611m)등정
2002년 5월 4일 내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점 2차 44일 세계최단기록 성공
2005년 5월 1일 5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5년 5월 11일 내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등정
2005년 7월 8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셔브롬 1봉(8,068m)등정
2005년 7월 31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셔브롬 2봉(8,035m)등정
2006년 9월 20일 내팔 히말라야 마나슬루(8,156m)등정
2007년 배려해협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계 고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인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늘을 오르다"
2008년 9월 30일 체육관광부 영웅장수훈(체육관광부 영웅장수훈 제511호)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학봉

· 연락처: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사무국(010-9838-6552)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지원센터 교육(무료) 참가자 모집 안내

1. 직무역량강화교육 (발표불안 극복 및 발표역량 향상과정)

▶일시: 11/8, 11/15, 11/22, 11/29
매주 금요일 17시~19시

▶장소: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중회의실

▶대상: 취업 및 이직을 준비하는 면접예정자, 발표역량 향상이 필요한 분 (도민 누구나 가능)

2. 노동법률 정기교육 (개정 근로기준법 특강 '핵심만 톡톡!')

▶일시: 11/19 화요일 16시~18시(2시간)

▶장소: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중회의실

▶대상: 누구나 가능

문의 및 신청

▶유 선 : 064-753-5667

▶홈페이지 : www.jejucwsc.org

Jeju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지원센터